

義城金氏 火餘世系

金 時 晃*

• 目 次 •

- I. 머 리 말
- II. 世系小牒의 作成 佩用과 傳來
- III. 還本宗 復本貫
- IV. 結 論

I. 머 리 말

義城金氏는 新羅初 大輔公 金闕智의 二十九世孫이며 新羅 敬順王 第四子인 諱錫을 始祖로 하여 지금까지 千餘年 동안 전해 온 韓國의 大姓이다. 義城金氏 族譜는 朝鮮 明宗 8年 1553 처음으로 編纂되었으며, 그 후 朝鮮 光海君 元年 1609에 己酉譜 編纂, 朝鮮 孝宗 元年 1650 庚寅譜 編纂 등이 있었으나 序文만 전할 뿐이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朝鮮 孝宗 7年 1656 不求堂 金逵 公이 梁山郡守로 있으면서 庚寅譜를 補完하여 聞韶 金氏 族譜 1冊 (총 63장)을 發刊한 이래, 大同譜가 十餘次 刊行되고 派譜도 적잖이 刊行되었다.

세상에는 가끔 亂離를 만나 서로 헤어져 他鄕에서 살다가 本貫은 물론 姓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族譜가 있을 수 없고, 자기 祖上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族譜를 만들어 子孫 代代로 전하면서, 家庭의 보물로써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더욱 徹頭徹尾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세상에 흔히 있지만, 亂離를 만나 가족과 헤어져서 他鄕에 떠돌아 다니느라, 祖上이 누구이며 本貫과 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 오다가, 姓과 本貫 및 祖上까지도 확실하게 찾은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더구나 확실한 事實과 증거될만한 文書가 있어서 몇 백년 뒤에 本貫과 宗族을 되찾은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義城金氏 火餘世系는 바로 이러한 稀貴한 例이다.

壬辰倭亂中인 宣祖 25年 1592, 義城金氏 집안에서 子女의 옷깃에 넣어 보존한 族譜인 義城金氏 火餘世系는 安東權氏 成化譜나 文化柳氏 族譜보다는 늦지만

*慶北大學校 教授

最初의 義城金氏 族譜인 癸丑譜(朝鮮 明宗 8年 1553)보다 39年 뒤이고, 現存하는 義城金氏 丙申譜(朝鮮 孝宗 7年 1565) 보다 64年 빠른 것이다. 이 族譜는 靑溪 金璉 先生의 孫子이며 鶴峯 金誠一 先生의 조카 雲川 金涌 先生이 壬辰倭亂 때 安東 守城長으로서 賊을 討伐하기 위해 出陣하기 前에 만들어 어린 아들(金鸞壽 當時 5歲)의 옷깃 속에 꿰매어 주었던 것으로, 壬辰倭亂 때 절반이 불에 탔기 때문에 世系小牒 또는 火餘古牒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7代를 지난 200여년 후에 다시 발견, 還本宗 復本貫할 수 있는 證據 文籍이 된 것이다.

本稿에서는 同 火餘世系의 作成 經過 傳來 및 金鸞壽의 子孫들이 還本宗 復本貫하게 된 經緯와 同 火餘世系의 가치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世系小牒의 作成 佩用 및 傳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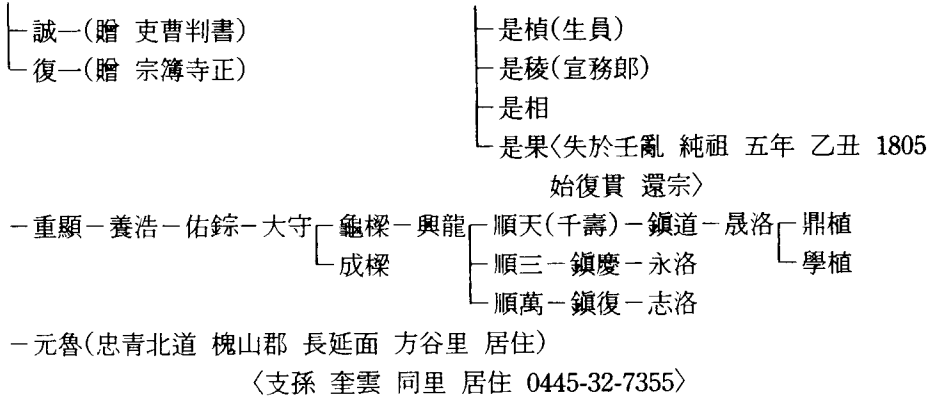
世系 小牒이란 처음 작성했을 때의 名稱이며, 나중 불에 탄 뒤에는 火餘世系라고 命名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世系 小牒을 작성한 雲川 金涌 先生과 佩用한 金鸞壽의 家系, 作成 佩用한 經緯, 傳來 過程 등을 살펴 본다.

1) 雲川 金涌 先生 및 金鸞壽의 家系

雲川 金涌 先生은 朝鮮 明宗 丁巳(1557)年에 安東의 臨河에서 태어나셨으며 字는 道源 號는 雲川, 義城人으로 靑溪 金璉 先生의 孫子이며 龜峯 金守一 先生의 아들이고 鶴峯 金誠一 先生의 조카이다. 宣祖 23年 庚寅(1590)年에 增廣文科에 及第, 承文院 正字 檢閱이 됨. 宣祖 25年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安東에서 義兵을 糾合, 安東 守城長으로서 抗爭하다가 이듬해 行在所로 扈從하여 吏曹佐郎 校理를 歷任, 督運御史 體察使從事官등을 지냄. 後에 善山府使 醴泉郡守를 거쳐 太常寺正으로 編修官이 되어 宣祖實錄 脩撰에 참여하고 驪州牧使에 이르러 辭職하고 고향에 돌아옴. 原從功臣으로 吏曹判書에 贈職됨. 募兵文, 雲川集 四卷.

雲川先生 및 金鸞壽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始祖 金錫(義城君, 大輔公 二十九世孫, 新羅 敬順王子)－逸－弘述－公祐－龍庇(義城君, 高麗 金紫光祿大夫 太子詹事)－宜(銀青光祿大夫 尚書左僕射)－瑞芝(朝顯大夫 內盈庫少尹)－台權(奉翊大夫 文睿府左司尹)－居斗(奉翊大夫 工曹典書)－洵(宣略將軍 進禮島都萬戶)－永命(朝奉大夫 新寧縣監)－漢啓(通訓大夫 集賢殿 校理)－萬謹(贈 左通禮)－禮範(贈 左承旨)－璉(贈 吏曹判書)－
 克一(內資寺正)
 守一(察訪) ————— 涌(贈 吏曹判書) — 是柱(兵曹佐郎)
 明一(生員) ————— 是樞(贈 左承旨)



위의 家系圖에서 보인 것과 같이 雲川先生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長子는 당시 18歲, 둘째 아들은 17歲, 셋째와 넷째 아들은 同 胎生으로서 14歲, 다섯째 아들은 11歲였고, 同 世系小牒을 佩用한 이는 先生의 第六子는 是果이다. 火餘世系가 발견되어 還本宗 復本貫한 것은 壬辰倭亂 때 失蹤한 後 213年 만인 雲川先生의 八代孫 順天의 代부터이다.

2) 世系小牒 作成 佩用 및 鸞壽의 失蹤

朝鮮 宣祖 25年 壬辰(1592) 4月 19日 雲川 金涌 先生은 壬辰倭亂을 당하여 愾然히 일어나, 몸과 마음을 나라에 바칠 뜻을 품고 倡義하였다. 먼저 安東 守城長으로서 義兵을 募集하여 군사를 일으켜 적을 討伐하러 나가기 前에 家族들과 이별하면서, 世系小牒을 작성하여 어린 아들의 옷깃 속에 꿰매 넣어, 뒷날 난리 중에 혹 실종될 것에 對備하였다. 그 小牒에는 祖先의 名諱 履歷 및 그 아들 兄弟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쓰되 冠者는 冠名을, 末冠者는 幼名을 썼으며, 끝에 난리를 당해 서로 나누어져 떠나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萬曆 壬辰 四月 十九日 聞倭寇 已陷列陣 明日 將奔避于 青松之地 亂中相失 不時異事 子女幼稚之 無知覺者 以爲 後日憑考 鸞壽所佩”

‘만력 임진(선조 25년 1592) 4월 19일, 왜구가 침입하여 이미 여러 진지가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내일 청송 산골로 가족들을 피난시키려 하는데, 난리 중에 갑자기 서로 헤어져 뜰밖에 일이 일어날 지 모르므로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가 않아 걱정이 많은 아이가 있으니 뒷날 증거로 삼기 위해 난수에게 차도록 한다’

위의 기록을 보면 世系小牒은 子女 모두에게 채운 것은 아니고 여섯 아들중 가장 어린, 당시 다섯 살인 鸞壽에게만 차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雲川先生은 龍濟으로 扈駕하였으므로 가족들의 存亡에 뜻을 둘 겨를이 없었고, 夫人 李氏(退溪先生의 孫女)가 어린 자녀들을 거느리고 산골짜기로 草行露宿을 하다가 山幕에서 밤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 불을 지르고 掠奪을 하였다. 그래서 놀라 홀으져 도망을 하던 중 여섯째 아들인 鸞壽를 잃어버렸다. 난리가 끝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 夫人은 늘 어린 아들을 생각하여 슬프게 울며 일생을 마쳤다.¹⁾

3) 金鸞壽의 生涯 및 火餘古牒의 傳來

金鸞壽(1588-1653)는 山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倭賊들이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掠奪할 때 다행히 목숨을 保全하였으나, 옷에 불이 붙어 반은 타버렸기 때문에 옷깃에 넣었던 世系小牒도 앞부분과 아랫 부분이 거의 타버렸다. 그래서 중간 윗부분과 뒷부분만 남고, 姓 本貫 始祖 및 代 祖上 住居地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火餘世系라 한 것이다.

그 後 金鸞壽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乞食을 하며 지내다가, 金海 金氏의 집에 收養兒로 들어가게 되었고, 金海 金氏로 行世하며 시골에서 農夫로 살고 있었다. 金海 金氏는 자기 親 子女를 모두 亂離 中에 잃었으므로 鸞壽를 친 자식처럼 사랑하였고, 또 金鸞壽의 收養家에는 三寸叔인 僧侶 惠澄이 있었으며 惠澄은 學識 있는 僧侶였기에 다음과 같이 ‘收養侄是果別給文券序’를 지어 주었다.

“余山居四十年 推觀心之工 得理之一字 始知天下萬事 無理外之物矣 推尋庵別堂前 有山梨樹 蟲其葉 蟪其實而 使同枯木 一沙彌 自山外 折金色梨一枝來 伐其樹而付接 始也其盡笑其萬不當 未滿數日 新芽之黃綠者 茁然而生 疑其本木也 掘土視之 金梨果與山梨 合爲一木也 噫 此理 豈獨有於木 而無於人乎 吾家兄 有茹箇子女 見失於兵亂中 幸而得君於奔竄日 雖未知誰家子 觀其灰燼係帖之 片字所存即分明是 赫世軒冕家兒也 家兄之收養而 爲己子者 何異於金梨之 付爲山梨也 嗚呼 鸞壽 乃君小字也 不可無行世名 從其本家行而 名汝曰是果 字汝曰碩汝者 取碩果之意也 錫君之子 名曰取仁 字種玉者 取其種子之意也 日後如或 還本宗復本貫即吾金海之金 其將無痕於世也 觀夫金梨之種子 落地而生者 爲金梨即 山梨之根 其將蠹而朽而盡也 然而金梨之 使之取種子者 無乃山梨之 一氣貫通者耶 又然即 吾金海之金 其有一氣貫通處於 一缺一 欽哉念哉 無使我祖先 雪 一缺一 闕香火 陳墳墓 一缺一 余爲山乞 一缺一 白銀十兩 一缺一 一同 一缺一 金海 一缺一 幸而忘 金梨之續於 山梨之理也夫 一缺一 以此附于 分給田畝文券末 永世相傳 一缺一 歲

1) 惺庵 金顯運(雲川先生 七代 宗孫)의 ‘聞慶族人還宗記’ 戊辰 1808. 10.

任年 收養三寸僧惠澄(手扶)”²⁾

‘내가 산(절)에 사십년 동안 살면서 마음 공부를 해서 理字 한자를 얻었다. 그래서 天下 萬事는 理致 밖의 事物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庵子를 찾아 別堂 앞에 이르니 산배나무가 있는데 벌레가 잎과 열매를 다 갉아 먹어 거의 말라 죽게 되었다. 한 어린 중이 밖에서 황금색 배나무 한 가지를 가져와서 그 나무를 베어 내고 집을 붙였다. 처음에는 그 萬不當함을 비웃었으나 며칠 뒤에 노란 새싹이 돋아나 本 나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땅을 파 보니 산배나무와 금배나무가 합해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아! 이 이치가 어찌 다만 나무에만 있는 것이겠는가. 그리고 사람에게는 없는가. 우리집 형이 子女 몇을 두었는데 兵亂 중에 다 잃어버리고, 다행히 奔竄中에 그대를 얻어 비록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그 타다 남은 係帖의 조각에 남아 있는 글자를 살펴 보면 분명히 훌륭한 선비의 집 아이이다. 우리 형이 收養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은 것이, 금배나무를 산배나무에 접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 鸞壽는 君의 小字이다. 세상에 행할 이름이 없을 수 없다. 그 本家 行列을 따라 너의 이름을 是果라 하고, 너의 字를 碩汝라 한 것은 큰 과실이란 뜻을 취한 것이다. 뒷 날에 만약 혹 本宗과 本貫을 되찾으면 우리 金海金은 장차 세상에 그 痕迹이 없어 지겠는가. 금배의 종자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금배가 되는 것을 보면 산배의 뿌리가 좀먹고 썩어 다하겠는가. 그리고 금배의 종자를 취하는 사람은 산배의 한 氣를 관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 김해 金의 한 氣가 관통한 곳이 있지 않으랴. -결- 즐겁고 흐뭇하도다! 우리 선조들의 신령께 -결- 제사를 곁하지않고 분묘를 묵히지 않는다면 -결- 나는 산을 -결- 백은 십량 -결- 一同 -결- 金海 -결- 다행히 금배가 산배에 이어지는 이치를 잊지 말 것이로다. 이 때문에 田畓 文券 끝에 붙여 영원히 전하도록 한다. -결-”

壬午年(仁祖 20 年 1642) 收養三寸 中 惠澄。(手扶)

金鸞壽의 收養三寸 僧 惠澄의 이 序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된날 金鸞壽와 그 자손들이 本宗과 本貫을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 文獻이 되었다. 다 죽어가는 산배나무에 금배나무를 접붙여 새 싹이 돋아 났다는 것은, 代가 끊어진 金海金氏 집에 새 아이가 들어와 더욱 훌륭한 자손으로서 대를 이었음에 비유한 것이다. 김난수의 성도 본관도 모르지만, 김난수는 분명히 훌륭한 집안의 아이라는 것을 確信했으므로 금배나무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行列에 맞

2) 例示 1

게 이름을 지어 주고 字도 지어 주었으며, 白銀 열 兩을 비롯한 田畓까지도 물려 주었다. 그리고 祖上의 祭祀와 무덤의 管理 등 子孫으로서의 할일 까지도 當付하였다. 이 序文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 주는 文券이 아니라, 너무나 人情美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글이다. 옛 사람들의 조상에 대한 向念은 물론, 인간된 도리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序文을 지은 것은 文券 末尾에 壬午年이라고 적혀 있는데, 임오년은 김난수의 나이가 54세이다. 그러므로 혜증은 나이가 매우 많았을 것이고, 이름과 字를 지어 준 것은 이보다 수십년 전인 난수의 어린 시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선인들의 周到 綿密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金是果公의 자손들은 金海金氏로 행세하며 無知한 농민으로서 窮山 絕峽을 轉轉하다가, 聞慶郡 馬岩里에 定着하여 公의 七代孫 金順天(千壽) 公에게 이르기 까지 213년 동안 살아 왔다. 그래서 이 火餘 古牒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惠澄의 文券序와 함께 상자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왔다.

III. 還本宗 復本貫

二百餘年間 箱子 속에 고이 간직되어 온 이 火餘 古牒이 세상에 다시 알려져서 金是果公과 그 자손들이 姓과 本官을 되 찾게 된 經緯를 살펴 본다.

1) 火餘世系 및 文券 再發見

朝鮮 英祖 元年 丁酉(1777)年間に 湖中の 權氏 姓을 가진 사람이 金千壽(金是果公의 七代孫 金順天)가 사는 마을을 지나다가, 金千壽가 비록 무식한 農民이지만 行實이 남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그집에 가서 그 연유를 묻게 되었다. 그래서 金千壽 등은 슬픈듯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남다른 行實이 있으리오마는 옛날에 아버지와 어른들의 말씀이 ‘우리 집안은 본래 선비의 집안이었는데 난리 중에 族譜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賤한 農夫를 면하지 못했다’ 하셨다”고 하며, 箱子 속에 감추어 두었던 古牒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 跋文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그 跋文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金順天은 그 妻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기에 점장에게 가서 물으니까 집안에 있는 옛 상자 때문이라 하여, 대들보 위의 먼지 속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어 불살라 버리려고 상자를 열어 보니, 불에 타다 남은 작은 牒冊과 古文書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웃 늙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그대 집안의 古蹟인데 그대가 文字를 모르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구 태워 버릴 수 있겠는가. 글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본 뒤에 태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므로, 順天은 그것을 가지고 선비

인 星江 李宇亮에게 가서 물어보았다.

李宇亮은 安東 川前 義城金氏의 外孫이며 十餘年 전에 安東으로부터 聞慶에 寓居한 사람이었다. 李宇亮은 그 불타고 좀먹다 남은 글자들을 자세히 살펴 보니 그것이 자기 外家 世系로, 난리를 겪은 古牒임을 알았으며, 그 한 장의 文書는 山人 惠澄의 分衿文인데 산배와 금배를 접붙이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李宇亮은 크게 놀라, 安東 川前 門中에 片紙를 써서 順天에게, 古牒과 함께 가지고 川前 門中에 가도록 하였다.

朝鮮 純祖 五年 乙丑(1805) 겨울 金順天은 小牒과 收養侄是果別給文券序 및 星江 李宇亮의 편지를 가지고 安東 義城金氏 宗家를 방문하였다. 雲川 金涌 先生의 七代 宗孫 星庵 顯運公 등 宗人들이 돌려 보니 先祖 雲川 先生의 手筆임이 宛然하였으며, 대개 當日 倡義하여 軍陣에 나아갈 때 親히 小牒을 만들어 世系를 손수 써서 여섯째 아들 鸞壽의 옷깃 속에 넣어 준 것이다.

2) 告官 釐正

純祖 五年 乙丑 十一月 日 聞慶 加西 馬巖里 金順天 등은 聞慶縣 本官에게 所志를 올렸다. 그 所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右謹言 所志矣段矣 竊有 世間稀異之事而 不得不以告官釐正者 茲敢不避煩畏 仰達于官司閣下 伏以 實七代祖 金鸞壽 本貫義城而 生於安東之川前里 者也 贈 吏曹判書 青溪公之曾孫 察訪 龜峯公之孫 贈吏曹參判 雲川公之第六子 文忠公 鶴峯金先生之從孫也 連代服享 家世簪纓而 年五歲 不幸值龍蛇之亂 于時 父雲川公 以安東守城將 留府而 家累奔竄 爲慮違失 書譜系小牒 佩之諸穉子 襟帶間 先祖鸞壽 果爾相失 流離沈浮 犯着兵火 所佩牒子 燒缺殆半 幸而保活於 金姓貫金海者 遂 姓其姓而 貫其貫焉 于今七代而 莫的其本先之爲何 何幸天道周星 先靈陰騭 近者 始諦先系之爲義城之金 以燼餘譜牒於 準于 安東 川前卽 世代字諱 配祔官銜 生 卒兆墓 班班昭訂 於是 宗族相逢 且淚且感 有如死者復生 天地罔極 自此諦我本先 復我舊貫而 竊伏念 改易姓貫 有非關聽官司 奉承官旨卽 不可私自擅 變違左帳籍 茲將家傳燼牒 及川前本譜 竝用仰陳顛末 從今以往義城 復貫事 立旨行下 千萬祈 懇之至”

‘삼가 所志를 올립니다. 世間에 드물고 이상한 일이 있기에 不得不 官廳에 告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이에 감히 번거롭고 猥濫됨을 무릅쓰고 官司 閣下에 仰達합니다. 저의 七代祖 金鸞壽께서는 本貫이 義城이며 安東 川前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贈 吏曹判書 青溪公의 曾孫이고 察訪 龜峯公의 孫子, 贈 吏曹參判 雲川公의 第六子, 文忠公 鶴峯金先生의 從孫입니다. 대를 이어 享祀하고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을 했는데, 다섯살 때 불행히도 壬辰倭亂을 만났습니다. 그 때 아버지 雲川公은 安東 守城將으로서 安東府에

머물고 계셨고, 家族들은 도피하여 숨는데 서로 헤어져 失蹤될 것을 염려하여 譜系小牒을 써서 여러 어린 아이의 옷깃에 차게 하였습니다. 先祖 鸞壽께서는 과연 서로 失蹤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兵火를 입어, 차고 있던 牒子의 殆半을 태워 버리고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여 金海金氏 성을 가진 사람에게 의탁하여 金海金氏로 살아 오면서 지금까지 七代 동안 根本과 先祖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天道가 돌고 祖上의 神靈이 몰래 도와, 近者에 비로소 불타다 남은 古牒을 가지고 安東 川前에 가서 準據해 본 결과 世代와 字諱 官銜 生卒年代 兆墓 등이 뚜렷하고 분명해서, 先祖의 系譜가 義城金이라는 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족이 서로 만나게 되니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난듯 그지없었습니다. 이로 부터 우리 本 先祖께서 옛 本貫을 살피 찾게 되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姓과 本貫을 고치는 것은 官司에게 告하여 官牒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스스로 擅斷하거나 帳籍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에 가정에 전하는 불탄 譜牒 및 川前 本譜와 아울러 올리며 그 顛末을 말씀드리니 이제부터 지난 義城으로 復貫하는 立旨를 내려 주시기를 千萬 간절히 빕니다’

乙丑 十一月 日 金 順 三
 金 順 萬
 金 月 三
 金 占 金
 金 成 泰
 金 成 孫
 金 丁 泰
 金 成 岳 等

이와 같이 聞慶에 居住하는 金順三 등 八人의 이름으로 聞慶縣 本官에게 證據文券을 갖추어 올린 所志에 대하여 문경 本官은 다음과 같이 官題를 내려 許可함과 동시 慶尙監營 및 京兆에 議送하여 承認받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官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考見文蹟 與三百年前 燼餘小牒子 眞是罕有之異事 七代淪爲庶民 今焉復舊姓而居然爲華閥後裔 此蓋雲川公 處事縝密之功也 金姓雖同 本貫釐正 不可以一官題施行 呈于巡營及京兆 以爲憑考之地 宜當”

‘文蹟과 三百年 前 불타고 남은 小牒子를 考察해 보면 참으로 이것은 드물게 있는 奇異한 일이다. 七代 동안 庶民으로 있다가 이제야 옛 姓을 되찾아 갑자기 華閥의 後裔가 되었으니, 이것은 대개 雲川公께서 일을 細密하고 삼가 처리하신 功이다. 金姓은 비록 같으나 本貫을 釐正하는 것은 한 官題로 施行할 수 없으

므로 巡營 및 京兆에 올려 여러 가지를 비추어 詳考하도록 함이 마땅함’

3) 火餘世系 背紙粧匣 補缺 呈于巡營

聞慶縣에서는 위와 같이 官題를 내림과 동시에, 聞慶縣監 嚴某는 이 火餘小牒을 義城金氏 火餘世系라 命名하고 背紙를 하여 粧匣까지 하였다. 규격은 14 첩으로 전체 크기는 가로 39 센치미터 세로 15 센치미터이다. 또 七代祖 以下 祖上들의 字 號 諱 官職 生卒年代 墓 所在地 其他 등 不明한 곳을 補充하였다.³⁾

乙丑年 1805 12月 聞慶居 金順三 金順萬 金月三 金占金 등은 ‘呈慶尚監營’의 議送을 提出하여 營題를 받았다. 그 營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兵燹搶攘之中 小牒分佩 其意可謂深遠 而今流落喚他人 作爲先祖之餘 忽因舊餘之蹟 依稀探蹟鑿鑿有據 始知爲義城之金 非金海之金 寧不奇且異哉 宗族曰然 文蹟非虛卽 明白無疑 不啻如執左契 依本官題施行 是矣 爲先俞議宗中 收載於同譜之中 宜當”

‘兵火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중에 小牒을 나누어 차게 한 것은 그 뜻이 깊고 멀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남에게 의지해 떠돌다가, 先祖께서 남기신 자취에 의지하고 탐색해 보니 뚜렷한 證據가 있어서 金海金氏가 아니고 義城金氏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奇異하고 또한 異常한 일이 아니겠는가. 宗族들이 그러하다 하고 文蹟이 거짓이 아니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證據 文券에 따를 뿐만 아니라 本 官題에 따라 施行하는 것이 옳다. 爲先 여러 宗中에서 의논해서 한 族譜에 실는 것이 마땅하다’

4) 先祖廟 告由 및 呈春曹 還貫復宗

가. 先祖廟 告由

朝鮮 純祖 六年 丙寅年 (1806) 正月 十六日 金千壽의 族人 延豐縣監 聽松 金宗壽 (1761-1813. 鶴峯 金誠一 先生의 宗孫) 公이 〈贈聞慶金碩士順三〉이란 글을 延豐의 豐樂軒에서 써 주었다. 그 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余位在延豐 刑吏持一帳所志 曳長袖鞠躬而入 告課于前 余聽之未半蹶然而起 親執所志而見之卽 乃聞慶居 金順三而 吾從先祖 雲川先生 七代孫也 不勝疑訝 延接相對 寒暄迄 順三袖出一封古蹟 及川前吾宗 世譜冊以示之 余先見譜冊卽來歷甚昭昭 自宗中 紀其事以附之 次見亂雜灰燼中 所餘古紙 乃是 雲川從先祖之手澤而 家牒諱字 或存或無者也 於是乎 余愕然而驚 愀然而感 執其手而泣曰 君是

3) 例示 2

雲川 先生 五歲兒之子孫乎 何爲而至於此也 世或有失譜 流落者而 君家之事實 是無於古之 異事也—”

‘내가 延豐縣監으로 있을 때 刑吏가 한 帳의 所志를 가지고 鞠躬하면서 들어와 앞에서 보고⁴⁾ 하기에 나는 채 반도 듣지 못하고 갑자기 뛰어 일어나 친히 그 所志를 보니 聞慶 사는 金順三인데 우리 從先祖 雲川先生의 七代孫이었다. 疑訝함을 이기지 못해 延接 相對하여 人事를 마치니 順三은 古蹟 한 封과 川前 우리 宗中 世譜冊을 내어 보였다. 내가 먼저 譜冊을 보니 來歷이 매우 분명한데 宗中으로부터 그 일을 기록해서 붙였고, 다음에 亂雜하게 불타다 남은 옛 종이를 보니 이것은 雲川 從先祖의 手澤인데 家牒 諱字가 흑 남아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놀라고 슬픈 느낌이 들어 그 손을 잡고 울면서 ‘그대는 雲川先生 五歲兒의 子孫이구나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에 가끔 族譜를 잃고 流落한 사람이 있지만 그대 집안의 사실이 옛날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하였다.

純祖 六年 丙寅 二月에 雲川先生 七代 宗孫 金顯運公은 이 사실을 家廟에 告하였다. 그 家廟告辭는 다음과 같다.

“維歲次 丙寅 二月 己卯朔 十日 戊子 宗孫顯運 敢昭告于

顯先祖考 贈嘉善大夫 吏曹參判 兼同知經筵 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 提學藝文館 提學 世子左副賓客 五衛都摠府 副摠官 行通政大夫 兵曹參議 知製教府君 顯先祖妣贈貞夫人 李氏 奧在 壬辰 倭寇竊發 家國震蕩 列閭陷沒 先祖倡義 不顧家室 露布霜劒 誓殲狗羯 京城失守 護駕龍灣 六載關下 千里鄉山 維先祖妣備嘗危艱 率穉子女 竄伏山間 遇賊抄擊 蒼黃分裂 六子鸞壽五歲相失 當時景色 尚何忍說 慈情所鍾 恨結心骨 死生存亡 杳莫能知 古老相傳 二百年茲 先靈默驚天道有期 塵箱古紙 墨華傳奇 維茲譜牒 先祖手筆 履歷名諱 既厥生卒 歷歷抄錄 付之襟裳 倉卒之際 慮事周詳 劫灰滄桑 茲牒不滅 斷爛餘存 亦足徵實 繫惟鸞壽 托寄海金 綿延不絕 七代于今 兄曰順天 仲曰順三 亦維順萬 乃其季男 今始同來 宗姓咸集 奉玩手蹟 曷勝於悒 同入廟庭 拜而且泣 蒼茫古事 宛然如昨 一氣感通 昭昭降陟 愴然肅然 如聞歎息 移貫復姓 同譜合族 序昭序穆 永世無斃謹以酒果脯醢 敢告厥由謹告”

‘丙寅年 二月 己卯朔 十日 戊子에 宗孫 顯運은

顯 先祖考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동지 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제학 예문관 제학 세자좌부빈객 오위도총부 부총관 행통정대부 병조참의 지제교 附君

4) 告課：下隸가 上司에게 申告함.

顯 先祖妣증 정부인 이씨께 밝혀 고하나이다.

지난 壬辰年 倭寇가 몰래 쳐들어와 가정과 국가를 크게 흔들어 여러 고을이 陷沒되었습니다. 先祖께서 창의하셔 집안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서릿발같은 칼을 날려⁵⁾ 오랑캐들을 기어코 殲滅하시려고 맹서하셨습니다. 京城이 陷落되자 龍灣으로 扈駕하셔 六年동안 국경 지방⁶⁾의 千里 鄉山을 다니셨습니다. 우리 先祖께서는 일찌기 위태롭고 어려움에 대비하셔 어린 자녀들을 거느리고 山間으로 숨어 다니시다가 적들의 습격을 받아 蒼黃중 서로 흩어져서 다섯 살 된 여섯째 아들 鸞壽가 失蹤되었습니다. 당시 형상을 어찌 차마 말하리오. 慈情의 엉킨 것이 마음과 뼈 속에 恨으로 맺혔고 死生存亡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옛 늙은이들에게 전해온지 二百年, 이에 先祖의 英靈이 몰래 돕고 天道가 期約이 있어, 먼지 앉은 상자 속 옛 종이가 기이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譜牒은 先祖의 手筆로 履歷 名諱와 그 生卒 年代를 歷歷히 抄錄하여 옷깃 속에 넣었던 것인데, 창졸한 때 일을 염려하심이 주도하고 자세하셔, 兵火⁷⁾가 天地를 뒤흔들⁸⁾ 때도 이 牒子는 없어지지 않고 불타던 것이 남아 眞實을 밝히는데 충분했습니다. 아! 다행히도 鸞壽는 金海金氏에게 寄託하여 끊임 없이 지금까지 七代를 이어왔는데 兄은 順天이고 다음은 順三 順萬이며, 끝인 順萬이가 이제 처음 같이 왔습니다. 宗中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先祖의 手蹟을 받들어 보니 어찌 슬픔과 울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함께 廟庭에 들어가 절하고 울었습니다. 蒼茫한 古事가 宛然히 어제 같습니다. 한 기운으로 느끼고 통하며, 밝고 밝게 降陟⁹⁾하여 愴然하고 肅然히 歎息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本貫을 옮기고 姓을 회복하며, 族譜를 함께해서 宗族과 합치고, 昭穆을 밝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라오며, 삼가 酒果脯醢로써 감히 그 사유를 아뢰나이다'

이와 같이 小牒을 가지고 先祖의 神位 앞에 聞慶 宗人의 還貫 復宗 顯末을 告하니 順天 등은 百拜하고 울부짖었으며, 여러 子孫들도 다 슬픈 감격에 젖어 握手하고 눈물을 흘리니, 鸞壽씨가 환히 살아 돌아 온 것 같았다. 드디어 金順天 順三 順萬 등 三兄弟 參席下에 昭穆을 밝혀서 譜牒에 기록했다.

나. 呈春曹 還貫復宗

純祖 八年 戊辰(1808) 十月 雲川先生의 七代 宗孫 顯運公은 <書聞慶族人還宗記>를 지어 주었다. 還宗記의 내용은 다른 文蹟과 大同小異하다.

純祖 三十年 庚寅(1830) 三月 金鍾運 金根壽 金曄運 金大壽 金亨壽 金整壽

5) 露布: 封하지 않은 書狀. 戰勝을 報道하기 위하여 布帛에 글씨를 써서 장대 끝에 달아 보도록 하는 것. 露版. <續博物志> '露布 捷書之別名 以帛書陽之竿'

6) 關下: 國境의 關門.

7) 劫灰: 兵火. (佛) 劫火 때에 생기는 재. 재가 되어 消滅함.

8) 滄桑: 桑田碧海. 滄桑世界: 變化가 많은 世上.

9) 陟降: 오름과 내림. 昇降. 登降. 하늘에 올랐다가 땅에 내렸다가 함.

金鎭維 金鎭綱 金鎭健 金鎭德 金鎭坤 金鎭商 金鎭義 등은 禮曹에 呈春曹狀을 올려서 禮曹로부터 春曹完文을 받았다. 그 春曹完文은 아래와 같다.

“觀此文蹟 不覺吐歎 世之失其譜而 還尋於久遠之後者 且或有之而 未有若是之奇 且異者也 夫當搶攘奔迸之際 各書系牒 付之衣帶者已 是古先輩 慮事之周詳 而及其遇火而 不盡爲煨燼寄寓而 亦不爲遺擲 卒乃發見於 三二百年之後者 亦豈無眷眷於冥默之地者也 且寺僧 別給文一丈 足爲證左明驗而 遠士之撞着 袖出來者 亦爲一大奇事也 十世淪沒於 隸僮 之賤而 一朝忽焉 復爲名家華閥者 固知有數 存乎其間耳 今見延倅之記事 祀孫之告由 與夫邑宰之定頤 道伯之磨勘 卒皆鑿鑿有考 使之還其本宗 兌其舊役 自是例施無更議 爲且念羅代舊裔 勿侵徭役 自有典例 兼有 此世間稀有之事 得爲功臣後孫卽 此當思所以 重護闡揚 廁跡衿紳之列者 亦爲成美之一道也 雖曰收養家之 絕其嗣姓 若或可矜而既得 的知其事實 固不可 仍舊蹲冒也決矣 從前墳墓 依舊守護 卽初來 收養之義 元不相妨是遺 貫鄉帳籍段 自漢城府 下至邑宰家牒一一釐正 身戶雜役 一一頤下而 俾得從事於士類之中 所驗人道之好還 一以明公議之攸屬 世世遵修 無忝爾所生 宜當”

‘이 文蹟을 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歎息이 절로 나온다. 세상에 그 族譜를 잃어버렸다가 오래고 먼 뒤에 도로 찾은 사람이 또한 혹 있었으나, 이와 같이 奇異하고 또 이상한 일은 없었다. 세상이 어지러워¹⁰⁾ 서로 흩어져¹¹⁾ 도피할 때, 系譜를 써서 각각 옷깃에 붙여 주었으니, 이것은 옛 先輩가 일을 염려함이 周到하고 자세한 것이었으며, 兵火를 만났는 데도 불에 다 타 없어지지 않았고, 남의 집에 寄託해 지냈음에도 끝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二三百年 後에 發見된 것은, 저승에서 조상들이 몰래 돌보신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또 중의 別給文 한장이 明確한 證據가 될 뿐만 아니라, 遠士에게 발견되어¹²⁾ 소매 속에 가지고 온 것 또한 하나의 큰 奇異한 일이다. 十世 동안 천한 隸僮로 살아 오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름난 집안 빛나는 門閥로 된 것은 그 사이에 運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延豐 縣監의 記事 및 祀孫의 告由와 저 邑宰의 定頤, 道伯의 磨勘 등을 보면 모두 틀림 없는¹³⁾ 考證이 있으므로 그 本宗을 돌이키고 그 옛 役使를 바꾸도록¹⁴⁾하고, 이로부터 例에 따라 다시 議論이 없도록 施行할 것이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新羅 時代의 옛 子孫으로서 繇役¹⁵⁾을 하지 않는 것은 옛날부터 典例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세상에 드문 일이 있고,

10) 搶攘: 몹씨 어수선했음.

11) 奔迸: 흩어져 달아남.

12) 撞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矛盾.

13) 鑿鑿: 깨끗함. 鑿鑿鮮明. 〈詩傳〉‘白石鑿鑿’

14) 兌: 바꾸다. 易也.

15) 徭役: 정부에서 세금 대신으로 시키던 노동. 繇役.

功臣의 後孫이 되었다면 당연히 소중히 보호하고 闡揚해서 衿紳¹⁶⁾의 隊列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또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하나의 도리가 될 것이다.

비록 收養家의 대를 잇는 姓이 끊어지지만, 만약 이미 얻은 것을 가련히 여겨, 그 사실을 的然히 알고도, 예전대로 躊躇하여 가려 버린다면 결코 옳지 않다. 從前 墳墓는 옛날대로 守護하면 처음 收養한 義理를 元來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고, 貫鄉 帳籍은 漢城府로부터 아래로 邑에 이르기 까지 家牒에 실려 있는 대로 일일이 釐定할 것이며, 身戶雜役은 일일이 벗어나서¹⁷⁾ 士類 中에 從事하도록 할 것이다. 人道가 좋게 돌아, 하나같이 公義에 따름으로써 代代로 遵守하여 너의 所生에게 더럽힘이 없도록 할¹⁸⁾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이 禮曹인 春曹의 證明書까지 받았다. 이 春曹完文¹⁹⁾에 나타난 것과 같이 庶民인 金海金氏로 있다가 名門華閥인 義城金氏로 還貫 復宗을 함으로서 下層民인 農夫가 선비의 階級으로 오르게 되어 繇役을 免除 받는 惠澤까지 입는 것이다. 물론 義城金氏라고 해서 다 그와 같은 待遇를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功臣의 後裔로서 당시 名門의 子孫임이 밝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IV. 結 論

이로 미루어 보면 天下 萬事가 다 理致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雲川 金先生께서 家庭을 돌보지 않고 나라에 몸을 바친 大節과 공이 먼 子孫에게까지 陰德으로 베풀어 진 것이며, 또 雲川先生과 같은 옛 우리 祖上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周到 綿密하게 했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선비로서 벼슬하는 臣下로서의 도리, 곧 自身이 지고 있는 責任과 義務를 얼마나 充實히 履行했는가를 斟酌할 수 있다.

그리고 還貫 復宗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根據될만한 文蹟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며,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宗中の 會議를 거쳐 該當 고을 官廳의 承認, 該當 道伯의 認定, 마지막으로 中央官署인 禮曹까지 許諾을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이나 過去 우리나라에서 公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徹頭徹尾하게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族譜는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에 歷史 學係에서는 歷史 資料로 認定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日帝 時代 이후 혼란기에 兩班이 되기 위해

16) 衿紳：士類. 벼슬아치.

17) 頗下：벗어남.

18) 無忝爾所生：父母 祖上에게 辱되지 않도록 함.

19) 完文：官文. 官廳의 證明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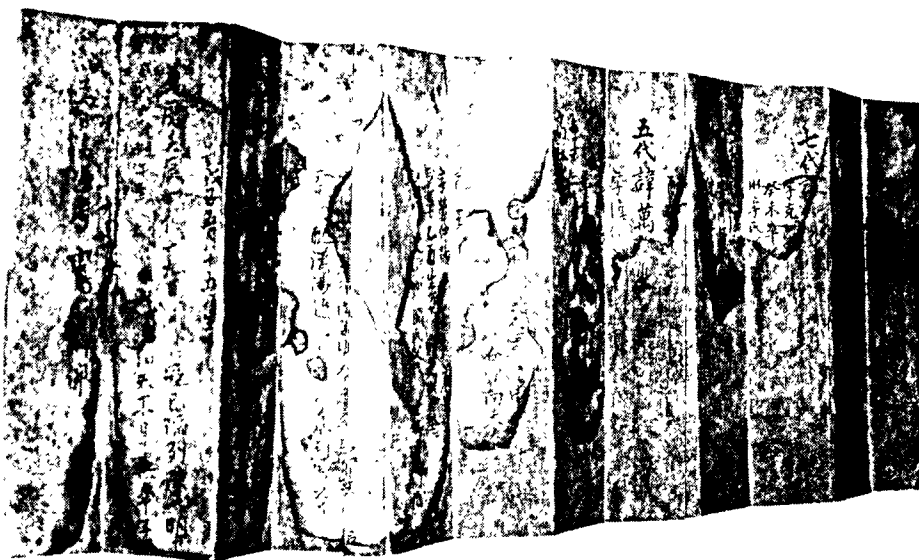
名閥에 假托해서 虛僞로 族譜에 오른 사람들이 없지 않고, 또 祖上이 누구인지 모르고 族譜도 없는 이들에게 金品으로 贊助를 받아 虛僞로 偷托해 주는 일도 가끔 있었다. 그리고 훌륭한 祖上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았는 벼슬을 족보에 기록한 例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祖上들의 이와 같은 정신을 본받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周到綿密한 計劃과 實踐하는 姿勢를 가져야 할 것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責任과 義務를 다하는 마음도 길러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族譜를 編纂함에 있어서 確實한 證據 文券과 믿을만한 사실에 의해서만 修訂하고 補充해야 한다는 것도 銘心해야 할 것이다.

舊日山房明色如一枚束伐及枝分付後
 他處也
 舊日山房明色如一枚束伐及枝分付後
 他處也
 舊日山房明色如一枚束伐及枝分付後
 他處也

夏者信譽利於交者
 以少平折親以少知
 天下者以少知天下
 天下者以少知天下

例示 2)



火餘古帖 間慶縣監嚴 楮紙粧匣

代

以上火缺
以下補缺

代諱

諱永命
新寧縣監

字克配

代諱漢

諱漢啓

字亨運永樂
統戊午文科

乙卯去員正
官校理

代諱萬

諱萬謹

字慎仲
丁酉進士贈通

配海州

贈通禮配吳氏父

季童昌

宋

林已向

墓府東臨河宋林
一子仁範二子禮範

高祖章

諱禮範字國字
已亥生庚午年

昌寧

谷卯向夫人

昌寧臨河西洞韓谷氏下

曾祖諱

諱璉

字瑩仲號青

庚申生

號青溪弘治庚申生萬曆

辰卒乙酉去員

贈吏判臺

影

庚辰卒墓景出影堂入

臘興閔氏父

世卿墓同兆

享夫人閔氏父司正世卿

和

祖諱守一

山

察訪配

萬請戊子生癸未卒乙卯去員官

下

字景純嘉靖

父

諱涌

源嘉靖

萬曆庚寅

其季氏父

幼子是柱乙亥生二子

字道源嘉靖丁巳生庚寅文科

是健丙子生三子龜封己卯生四子龍甫與

龜同胎五子鶴甫壬午生季龜甫即也

也戊子五月十五日生

萬曆壬辰四月十九日聞倭寇已陷列陣以明

日水奔避于青松之地凡相失不是異事子

女幼稚之無知曉見者

以為日後憑考 驚 而佩